

희망의 밥상 (Harvest for Hope)

이경신 장로

내가 독서 프로그램의 평가자로 이 책을 처음 받았을 때 나는 약간의 부담감을 가졌었다. 빨리 읽고 다음 평가자에게 이 책을 보내 주어야하는 입장에서 450 페이지에 달하는 책의 두께가 가져다 준 중압감때문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희망의 밥상”이란 제목에서 풍겨지는, 매우 친숙한 “밥상”이란 이미지가 나의 관심을 끌어서 보고 있던 책을 접어두고 이 책을 읽기 시작하였다.

저자 제인 구달은 1960년부터 탄자니아 곰비 지역에서 야생 침판지에 대한 수년간의 연구 결과로 케임브리지에서 동물행동학 박사학위를 받은 동물학의 권위자이다. 그녀는 심도깊은 야생 동물 연구를 통해 인간이 저지른 환경 파괴로 인해 동물들이 처한 위험을 알리고, 유기농법을 통해 인간이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어떻게 자연과 더불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해 역설할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 방법들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는 선구자 역할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학자이자 실천가이다.

이책에서 저자는 우리의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우리들의 먹거리에 대한 자세한 경고와 지침이 되는 귀한 말씀을 마치 예언자의 음성으로, 호소하듯 우리들의 마음에 심어 주고 있다.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많은 정보와, 그동안 알고 있었지만 미처 깨닫지 못했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자각과 함께, 소비자로서 개인이나 단체가 당장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저자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실천적 삶을 소개 하고 있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다국적 기업들이 오로지 막대한 이윤 추구를 위해 저지르는 만행들은, 많은 가족의 희생과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깨뜨리는 유전자 조작과 호르몬의 남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책은,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환경을 오염시키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신 이 세상을 과멸로 몰아가고 있는 죄에서 돌이키어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도와준다.

이 책은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여성들이 꼭 알아야 할 사실들을 풍성하게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 젖소에게 투여되는 보빈 성장 호르몬과 동물들에게 투입되는 항생제의 남용이 우리 신체에 어떤 결과를 가져 오고 있는지를 실례를 들어가며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그러나 이책은 우리에게 실패를 과약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로서 우리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제시하면서, 소비자 한 사람이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고 이러한 한 사람의 헌신이 수퍼마켓에서 거대한 기업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세계화 속에서 환경 오염이 우리 밥상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피부로 느끼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있는 결단과 행동이 작게는 우리 식구들의 건강을 살피고 크게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일깨우는 이 귀한 책을 나는 손에서 내려 놓을 수가 없었다. 이책이 한국어 독서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들의 밥상을 다시 한번 살피는 촉진제가 되었으면 한다.

.....
■ 이경신 장로는 한인여성교회 전국연합회 회장이며 여성국 한인자문위원이다. 현재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 주문은 Mission Resource Center로 ([책 주문방법](#) / [주문 양식](#))
주문번호: # R1038 / 가격: \$22